

전 남

# 갈등되는 영산강 시설 유지 관리비

### 국토부 "4대강 사업 끝나 지자체 일부 부담해야"

### 나주시 "명확한 근거 없어...국고로 충당" 맞서

영산강 고수부지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영산강 등 고수부지 유지관리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하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넘겨주는 바람에 각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영산강 고수부지 가운데 총 49km로 가장 길고, 넓은 면적을 유지관리하게 된 나주시도 이에 뒤따르는 유지관리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액부담은 어렵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니 일정부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

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가다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권 이관 첫해인 올해 고수부지 유지관리 예산은 국비로 15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우기철에 큰비가 올 경우 토사 유출은 물론 고수부지에 조성해놓은 자전거 도로와 심어놓은 나무 등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장비 마련과 인력비용이 만만치 않아 올해만 해도 이 같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국가와 지자체가 처리해야 하는지 책임소재

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소지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고수부지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 김정남 재난관리과장은 "고수부지 관리권을 넘겨받았지만 이에 뒤따르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가 일정부분 시비 충당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탐진강 뱀장어 방류

강진군 직원과 주민들이 최근 군동면 탐진강에 12cm길이의 뱀장어 1만2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수산자원 조성과 어린 소득증대를 위해 뱀장어 등 다양한 어종의 방류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나주 농업박람회 개막 준비 순조

### 전시관 2개동 완공...주차장 문제도 해결

세계 농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농업박람회의 개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농업박람회 사무국(사무국장 박래복)은 "최근 주재 전시관인 생명농업관과 농업미래관 2개 동을 완공하고, 행사장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10년간 개최한 국내농업박람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 200대, 승용차 516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외부를 확장했다.

또 서버버스 18대를 투입해 광주역과 송정역, 나주시내에서 박람회까지 운행, 승용차 집중이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남평~송정간 국지도 55호선 중 남평에서 농업박람회까지 일부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8월께 조기 개통하게 됐다.

한편 국제 농업 박람회는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오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K-water '가뭄극복' 총력

### 저수량 유지·농업용수 확보·식수 공급 나서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K-water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다목적댐 저수량은 현재 44억6000m<sup>3</sup>로 예년대비 101%, 14개 용수댐은 2억m<sup>3</sup>로 예년의 120%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주담댐·장흥댐을 비롯한 4개 댐은 26일 현재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으나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용수공급 계획 등을 수립했다.

K-water는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가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임하댐 등 4개댐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을 겪고 있는 댐 인근지역에 현재까지 81만m<sup>3</sup>의 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가뭄지역에 광역상

수도 비상연계 시설을 활용해 부족한 농업 및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평소 지하수 관측에 활용되는 가뭄지역 인근 지하수 관측정을 활용해 하루 270m<sup>3</sup>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 역시 가뭄이 극심한 전남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병물 3000병을 진도군 조도면에 공급했다. (사진) 이후 가뭄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급수차를 활용, 대민 지원에 나설 계획 등을 수립했다.

신승은 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 가뭄 심화에 대비해 댐 저수량의 철저한 관리와 댐과 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통해 용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양시 행정기구 개편 불투명

### 충원 등 조직진단 정부 통합안과 겹쳐 용역비만 날릴 판

광양시가 추진하는 기구개편과 정원 충원 등 행정기구개편 전망이 불투명하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인구 15만명 달성에 맞춰 현 행정조직을 재진단해 미래 행정환경과 최상의 행정조직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1억1000여 만원을 들여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 이달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안이 지난달 확정되면서 광양·여수·순천 지역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약재가 겹쳐 당초 신청한 98명 정원 충원은 물론이나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만 해도 시 일부 공무원들은 현재 2국 체제에서 3국으로 늘게 되면 승진과 정원 충원 폭이 클 것으로 보고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기존 산단 추진단이 정식 행정조직으로 편입되고, 실제 정원충원은 극히 작을 것이라 여분이 일면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그동안 인사에서 행정직에 밀려온 기술직들은 정원이 늘면 기술직들도 승진인사에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감을 가졌으나 최근 들어 허탈해 하는 분위기가.

광양시 한 공무원은 "3개 시 통합이 결집될진 하지만 향민과 산업도시로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충원이 너무 절실하다"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정 인원의 충원이 반드시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기 인사담당은 "이번 기구개편은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을 설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모델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용역"이라면서 "그동안 조직진단 의견수렴과 보고회 등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계획대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양시가 신청한 기구개편과 정원 충원에 대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및 타 지자체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며 "시기와 충원 폭에 대한 통보는 오는 7월말 또는 연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양시의 신청사유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관련 법에 따라 검토중에 있고, 실제 행정적 판단과 실행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인구 9만여 명에 공무원이 1100여 명에 달하지만, 인구 15만명인 광양시는 현재 정규직 870명·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150여 명 등 10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aT광주·전남지사 "경영실적 최고"

### 작년 수출지원 등 10개 부문 평가 전국 1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가 2011년 공사 경영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6일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에 따르면 aT는 매년 공사비전 및 경영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경영 효율 제고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11개 지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사는

수출지원, 청렴·윤리경영, 사회적 기여 및 유동성도 실적수준 제고 노력 등 10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농식품 수출 증대, 식품산업 육성, 농산물 수급안정 등 사업 확대에 따른 내외부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성창현 지사장은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선도 지사로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새 얼굴

### "진정한 자치·군민 권익 대변 앞장"

#### 박 금 래 고흥군의회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금래(64) 의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정이 넘치는 이웃, 사람다운 사람 법세가 나는 사회,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고장이 되도록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개원이래 처음으로 재직의원 전원 참석과 전원 투표, 만장일치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화합 속에 원구성을 마쳤다.

/중부취재본부=추경중기자 gjju@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정당 ·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관망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비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를 이미지 도형시 개발보장이 법적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공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뎌질도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구멍이 시공을 했음에도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병훈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서 열이 들어오면 찻때, 산산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